

기독교교육공동체의 가능성 탐색

성균관대 교육학과 석박통합과정 서다예

< 목 차 >

I. 서론
II.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
1. 피터스와 화이트의 교육받은 인간과 한계
2.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III. 기독교 교육공동체의 필요성
IV. 기독교 교육공동체의 가능성
V. 결론

I. 서론

우리가 기독교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교육받은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세속 사회에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수 있다. 교회나 기독교 대학들의 교육목적에도 반영되어있다시피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적 정신, 신앙과 영성,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극복하고 본래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뚜렷한 방향성은 이미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를 상정하고 있다. 우리가 교육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이상적인 인간성을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서양의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관점은 회람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은 생산 노동에 종사해야 했던 노예가 아니라, 여가 시간이 있는 자유인(free man)에게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람시대의 교육은 노예의 직업전문교육이 아닌 자유인을 위한 교육, 즉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었다. 여기서 교육받은 인간의 전형인 자유인은 단순히 직업을 위한 활동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자유를 향유하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고대 자유교육은 교육의 이상이 담겨 있었다. 자유교육의 의미는 계승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였다. 학자들마다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무엇으로 보느냐를 두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온 것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교육이론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자유교육론의 ‘자유인(free men)’ 혹은 ‘자율적 인간(frustrated autonome)’일 것이다. 전자가 피터스(R. S. Peters)의 관점을 대표한다면, 후자는 화이트(J. White)의 관점이다. 한편, 두 관점 모두 자유주의 혹은 계몽주의 전통에 의해 추상화된 인간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적 아이디어를 제시한 맥킨타이어(A. MacIntyre)가 있다. 그의 관점은 자아를 논리적으로 추상화된 자아가 아닌 맥락과 상황 속에 있는 자아로 보며, 앞의 두 관점보다 개인과 공동체 중에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받은 신앙인의 모습을 위해 기독교교육에 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날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이론으로 자리 잡은 자유교육 아이디어에서 추구하는 ‘교육받은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맥킨타이어의 아이디어인 ‘교육받은 공중’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맥킨타이어의 아이디어가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분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 속에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으로써 기독교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독교가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 를 이루어가며 다양한 맥락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

교육받은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나를 논의하기에 앞서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세속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육받은 인간의 이상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과 동일하다거나, 그 모습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역할하지 못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즉 겉모습만 신앙인인 채 하는 모습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고 한계가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1. 피터스와 화이트의 교육받은 인간과 한계

20세기 중반 이후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유교육에서 교육받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피터스와 화이트는 사회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두어 자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관점을 같이한다. 우선 피터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유교육의 전통을 이어받아 교육받은 인간상을 기본적으로 ‘자유인’으로 본다. 자유인이 무엇인가 또는 교육받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무엇으로 보느냐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피터스에게 있어 교육의 개념은 교육받은 인간에 관한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는 활동’이다. 이 때 교육은 특별한 활동이나 과정을 꼬집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나 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다 (Peters, 1966; 23). 그 기준은 ‘교육의 개념 안에 불박혀 있는 세 가지 준거’이다. 세 가지 준거는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이며, 교육은 그것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인 것이다.

먼저 규범적 준거는 교육이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교육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외재적인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잠재 능력의 발달이나 지력과 인격의 발달을 위한, 즉 교육의 개념 속에 불박혀 있는 내재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교육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재적 가치가 실현된 상태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재적 가치의 구체적 ‘내용’이 바로 인지적 기준이다. 인지적 기준은 바로 지식과 이해와 인지적 안목이며, 이런 것들이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지식이 ‘무기력한’ 지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화이트헤드가 언급한 지식의 요건이다. 이 말에는 지식들이 서로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물을 보는 안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고의 형식’

안에 들어온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정적 준거는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상세화한 것으로 교육이 도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최소한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Peters, 1966; 유재봉, 2002; 임정연·유재봉, 2007).

이상에서 보았듯이, 피터스에게 있어서 교육은 교육의 개념 안에 불박혀 있는 세 가지 준거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교육의 개념 안에 불박혀 있는 세 가지 준거를 성취한 사람이다. 성취했다는 말은 라일(G. Ryle)의 ‘과업어’와 ‘성취어’ 구분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탐색하다’는 말은 과업을 나타내며, 한편 ‘발견하다’는 말은 성취를 나타낸다. 전자가 활동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성취어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피터스가 보기에 교육은 성취어다(Peters, 1966; 25). 왜냐하면 앞서 교육을 정의한 바와 같이,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한다는 것은 그 개념은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다. 교육의 준거를 성취한 상태가 곧 교육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하자면 교육과 교육받은 사람을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피터스의 교육받은 인간은 교육의 준거를 만족시키는 사람이며, 구체적으로 합리적 마음을 계발하여 지식과 이해 그리고 인지적 안목이 형성함으로써 내재적 가치를 실현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교육을 대표하는 피터스가 말하는 교육이 ‘합리성 혹은 지식 추구’로서의 교육이라면, 자유교육의 또 다른 전형으로서 화이트의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 함양’으로서의 교육이다(유재봉, 2002; 45). 화이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자율성(personal autonomy)을 신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합치되는 교육 목적이기도 하다. 자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화이트에 있어서 교육받은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자율성은 무엇인가? 자율성의 개념은 그와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자율성에 반대되는 타율성의 개념, 그리고 자율성(autonomy)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자족적 자율성(autarchy)과 순전한 자율성(authenticity)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먼저 타율성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전통이나 종교와 같은 외적인 권위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율성은 자기가 선택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즉 얼마나 더 자율적이고 덜 자율적인지에 따라 자족적 자율성, 순전한 자율성으로 나뉜다. 자족적 자율성이 합리적인 선택자(rational(social) chooser)로서 자신을 강조하는 ‘약한’ 의미의 자율성이라면, 순전한 자율성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radical chooser)로서의 자신(다소 유아적인 선택을 하는 자신)을 강조하는 ‘강한’ 의미의 자율성이다(유재봉, 2002 51). 여기서 화이트가 말하는 자율성(autonomy)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 또는 성찰을 포함하는 자율성이다. 그렇다면 화이트의 개인의 자율성 앞서 정도에 따라 나눈 자율성 구분에 따르면, 자족적 자율성과 순전한 자율성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자율성은 자기가 선택한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적 반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피터스의 영향 하에서 합리주의적 전통에 기대어 개인의 자율성을 설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터스 식의 내재적 가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욕구의 충족의 관점에서 개인의 잘삶을 말한다는 점에서 피터스와 구별된다. 개인의 잘삶을 추구하는 교육은 자신의 삶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 고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마다 고차와 저차를 나누는 욕구의 위계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완전히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상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 반성을 거친 욕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추구해야 하는 인간으로, 공동체의 성격 때문에 그가 의도한대로 선택을 할 수 없는 타율적 인간(unimpeded heteronome)과 대비되는 자율적 인간(frustrated autonome)이다(이지현 · 김희봉 역, 2002: 52). 요컨대, 화이트의 관점에서 교육받은 인간은 각자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비판적 성찰 후에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유교육이라는 틀 속에 피터스와 화이트는 저마다 교육받은 사람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 피터스의 자유인은 외적인 자유가 아닌 내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가 보기에 자유교육은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좋은 삶'을 합리성을 추구하는 삶으로 해석함으로써 합리적 마음의 계발을 통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이다. 여기서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곧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내적인 자유 즉, 정신적인(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다. 한편, 화이트의 자율적 인간은 공동체 전체의 잘살보다는 개인의 잘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삶 전체에 비추어보아 고차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이다. 교육받은 개인이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개인의 잘살 속에서 공유되는 타인의 잘살에 한해서이다. 바꾸어 말하면, 타인의 이익에 대한 배려가 개인의 잘살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개인의 잘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해보건대, 피터스나 화이트로 대표되는 자유교육은 사회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둔 교육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관점을 같이한다.

다소간 합리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두 입장은 삶과 경험이 배제된 인간을 교육받은 인간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피터스는 교육받은 인간의 의미를 다소간 좁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교육받은 인간을 다름 아닌 교육 개념의 세 가지 기준을 성취한 인간으로 보는데, 이렇게 볼 때 준거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교육의 과정은 사실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의 필요조건인 합리성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사회에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화이트는 피터스의 한계를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자율성을 자유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합한 교육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자율성이 강조되지 않는 사회에서도, 예컨대 전통사회, 유교적 사회, 원시 사회, 종교적 사회에서도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피터스나 화이트 모두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자율성을 해석하는 한, 보편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어느 사회에서도 통용되지 못하는 '탈맥락적' 특성을 보일 것이다(유재봉, 2001b: 153).

2.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맥킨타이어는 피터스와 화이트와 함께 직접적으로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논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교육받은 공중의 아이디어」(The Idea of an Educated Public)라는 논문에 나타난 교육받은 공중은 또 다른 형태의 교육받은 인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육받은 공중의 아이디어는 자유주의 혹은 계몽주의 전통에 의해 잃어버린 공중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다. 자유주의 혹은 계몽주의의 체제에서는 도덕은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합리성에 토대한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근대적 합리성은 인간의 계산적 이성에 한정 지음으로써 사회·문화적인 구체성을 배제하고 있다. 사회와 분리된 추상적 개인에게 행위 판단 기준으로 목적은 사라지고 도덕은 주관적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목적이 전제되지 않은 채 합리성에 바탕을 두 개인의 자율성의 강조는 현대 사회의 도덕적 불일치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맥킨타이어는 '사회적 실제'(practice), '전통'(tradition) 그리고 '인간 삶의 서사적 통일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덕 개념을 제시한다. 먼저, 사회적 실제란 내재적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활동 형식이다. 개인은 사회적 실제에 입문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덕을 소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회적 실제에는 축구공 던지기, 벽돌쌓기, 무심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게임, 과학, 예술 등이 포함된다(유재봉, 2002; 147). 이들 활동의 공통점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 안의 협동적인 인간활동”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전통은 과거의 것이라기보다는 변화의 역사 속에서 확장되고 사회적으로 구현된 선에 관한 논의이다(MacIntyre, 1988; 327). 다시 말해서 전통은 선을 추구하는 동시에 끊이지 않고 이어온 선에 대해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전통은 불변하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새로운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전통’(living tradition)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 삶의 서사적 통일성은 개인의 개별적 실천을 통해 성취한 덕들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도덕적 삶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덕들의 질서와 조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실천은 무엇이 우선이고 목적인지가 불분명하여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때 질서는 특정 목적에 의해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가는 과정의 역동적인 모습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서사적 통일성은 불확실한 개인의 삶을 전체로 파악하여 행위와 실천에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맥킨타이어의 덕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그의 교육은 무엇인가? 자유교육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특성, 즉 합리성 혹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면, 맥킨타이어의 교육은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육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이 현재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통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회적 실제의 내재된 가치를 실천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때 실천은 개별적 실천이라기보다는 삶의 전체에 비추어보다 통합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맥킨타이어에게 교육받은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교육은 교육개념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살아 있는 전통에 내재된 선에 의해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사회적 실제에 입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은 공중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적 맥락을 떠나있을 수 없다. 사회적 실제에 내재된 선은 오로지 사회적 실제에 참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획득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교육받은 사람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행위를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맥킨타이어에게 교육받은 사람은 개인과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인간의 삶의 두 가지 측면이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다. 플라톤은 ‘국가는 대문자로 쓰인 개인’이라고 하면서 개인은 국가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국가의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영혼의 올바름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교육론자들은 개인과 사회의 통합을 간과하거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직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유재봉, 2002; 192). 그러나 사회적 실제에 기반을 둔 교육은 자율성이나 사회화라는 두 극단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교육받은 공중은 사회 혹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선을 추구하면서도 순응하기만 하지는 않고, 사회적 실제에 참여하는 개인의 능동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맥킨타이어에게 교육받은 사람은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성취를 이뤄가는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개인이 속하고 참여하는 전통은 불변하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새로운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전통’이다. 교육받은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맥킨타이어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해 가는 ‘교육받은 공중’을 양성할 것을 주장한다(유재봉, 2001a; 242). 앞서 자유교육의 일차적인 관심은 다소 개인적 차원에서의 잘살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교육받은 공중은 개인의 잘살과 사회에서의 잘살을 통합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점에서 맥킨타이어의 아이디어는 개인적 차원을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자유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III. 기독교 교육공동체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교육받은 신앙인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도 의미를 가져다준다. 교육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피터스와 화이트로 대표되는 자유교육부터 맥킨타이어까지 학자마다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피터스는 ‘합리성 혹은 지식 추구로서의 자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면, 화이트는 ‘개인의 자율성 함양을 강조하는 자유교육’이다. 먼저 피터스의 자유인은 합리적 마음을 계발하여 내적인 자유, 즉 정신적인(지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피터스에게 교육받은 인간은 사물을 통합적으로 보는 인지적 안목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지식의 준거를 만족시키는 일은 삶과 경험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 그러한 인지적 측면이 인간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한편, 화이트의 자율적 인간은 각자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욕구 충족적 관점에서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 화이트는 자기가 선택한 대상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 반성을 거친 욕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 충족적 관점에 근거한 자율성은 특정 사회, 즉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는 맥락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모든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맥락에 근거하지 않는 추상적 자아의 잘살을 인지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자유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아이디어는 의미가 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해 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선택한 가치를 공유하고 변화시켜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교육받은 공중 아이디어에는 세속 사회에서 보다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어떤 신앙인은 한편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하면서도 세속 사회의 요구하는 조건 사이에 딜레마를 겪는다. 이에 공유된 합의를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맥킨타이어의 주장은 세속 사회와 신앙의 통합을 이해할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때 세속 사회와 신앙의 통합은 세상의 세계관에 맞게 기독교적 가치를 양보한다거나 협상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어떤가하면, 다원성 속에 잃어버렸던 목적과 방향성을 세우는 데에 교회가 사회의 한 축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인간 이성에 관한 맹목적인 신념에 근거하여 혼란했던 가치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되고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을 열어놓은 것이다.

맥락 속에서 교육받은 신앙인의 모습은 모종의 목적을 공유하는 교육공동체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고 항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인간은 공동체적 삶을 가운데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은 교육에서도 다르지 않다. 배움을 받고자하는 학생과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라는 맥락 속에서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접근을 교육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이유나 외; 154). 이는 기독교공동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교육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자화 위주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공동체적인 차원 접근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기독교 교육공동체의 가능성

기독교교육공동체는 사회 안에 교회라는 맥락 속에서 기독교교육의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받은 신앙인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목적으로 협력하는 사회적 실제 속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재된 선을 내면화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복음의 전통적 전달주의 교육을 보면 다소 메시지의 전수 및 수용이라는 교육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현대 복음주의 교육학자 로버트 파즈미노(Robert W. Pazmino)는 “학생들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함이 없이 또 모든 참여자들 편에서 결단과 반응을 촉구함이 없이 단순히 학습 내용을 전수하고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역설했다(한철희, 2002; 109). 기독교교육을 통해 전수받은 지식이 삶과 실천과 유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7)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의 몸의 부분으로 삼으셨다(고용수, 2015; 34).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맥락에서 개인들을 하나 되게 하고 몸의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공유하는 교회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교육 활동의 통일성과 구조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고용수, 2015; 32).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은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목회의 분리, 교회학교와 교회의 체제 분리,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분리, 신앙과 삶의 분리 현상 등 교회교육은 수많은 ‘분리’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용수, 2015; 31). 이러한 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게 된 배경에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써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교류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는 그러한 분리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독교 교육 단체 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교육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교육받은 신앙인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현대 교육이론에서의 교육받은 인간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받은 인간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도 아니고,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인간도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적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협력해가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인간이어야 할 것이다.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아이디어는 이러한 교육받은 신앙인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유교육의 대안으로써 맥킨타이어의 교육사상이 기독교 교육에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가져온다. 합리성 혹은 지식의 추구로서의 자유교육은 자유를 다소간 정신적 자유로 의미를 좁혀 해석하기 때문에 합리성과 합리적 마음의 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합리적 마음의 계발은 여러 가지 지식 혹은 교과의 형식에 입문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이론적인 경향에 치중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맥킨타이어의 교육은 자신이 속한 살아 있는 전통에 내재된 선에 의해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사회적 실체에 입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은 공중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적 맥락을 떠나있을 수 없다. 사회적 실체에 내재된 선은 오로지 사회적 실체에 참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획득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교육받은 사람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행위를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인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맥킨타이어의 논의는 자유교육이 제시하지 못했던 목적과 방향성의 중요성을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공동체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중의 모습이 진리로서의 신앙의 본질에 보다 가깝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유교육에서는 다소간 잘살은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한 바 있다. 화이트의 '욕구 충족적 관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요구와 개인의 욕구 충족의 상충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맥킨타이어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합리성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자아를 상정하고 있다. 물론 맥킨타이어는 목적을 공동체적인 가치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개인적 차원보다는 인간 안의 이타적 인격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이타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고용수. (2015).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 형성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2, 13-46.
- 유재봉(2001a). “맥킨타이어의 교육사상 : ‘교육받은 공중’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Vol.23 No.2. pp.227-243.
- 유재봉(2001b). “화이트의 자유교육론의 비판적 검토”. 교육철학 제26집. 143-162.
- 유재봉(2002). 현대 교육철학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유재봉 · 임정연(2007).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논쟁 검토: Peters에 대한 Martin의 비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Vol.25 No.4. pp.35-39.
- 이유나, 김춘화, 이상수. (2016). ‘교육공동체’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종합연구, 14(2), 153-185.
- 한철희. (2002). 복음주의 기독교교육에의 인식론적 대안 고찰. 기독교와 교육, 10, 106-133.
- A. MacIntyre.(1988). After Virtue, 2nd e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이진우 역 (1997).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1997.
- Peter, R. S.(1966).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이홍우 · 조영태 역(2003).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pp.222-223.